

소설

소설의 훌륭한 점은, 읽고 있는 가운데 '거짓말을 검증하는 능력'을 익힐 수 있는 것이다.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거짓말 더미 같은 것이라 오랫동안 소설을 읽으면 무엇이 성의 없는 거짓말이고, 무엇이 성의 있는 거짓말인가를 구분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. 이것은 꽤나 도움이 된다. 무라카미 하루키, <무라카미 씨가 있는 곳>

국내 소설

- [살인의 문](#) 2019-09
- [천년의 질문](#) 2019-09

관련 문서

- [OPEN](#)
- [OPEN](#)

From:
<http://jace.link/> - **Various Ways**

Permanent link:
<http://jace.link/open/%EC%86%8C%EC%84%A4>

Last update: **2020/06/02 09:25**

